

한나라당 대선주자 광주 정책 토론회

쟁점별 토론 내용



29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에 참가한 5명의 당내 경선 주자들의 토론장에서의 모습이 다양하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대운하 환경 재앙” “열차페리 예산 낭비”

한나라당 대선주자 5명은 29일 광주에서의 경제분야 정책토론회가 경선 초반 판세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책을 적절히 설명하는 한편, 상대 후보 정책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날 벌어진 토론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만을 위한 목적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진화 의원이 “함부로 국토를 파괴하는 것은 낡은 구상이다”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이어 “운하가 있다는 유류는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70% 사용하지만 우리는 80%를 강물에서 식수원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강물을 가뭄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며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운하는 19세기적 구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구상을 계속하면 나중에 국민의 엄청난 심판이 예상된다”고 공세를 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1세기에 운하를 파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부운하는 인구 3천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 운하를 만드는 데 거기를 지나가는 화공약품이나 시멘트를 실은 바지선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18km 짜리 경인운하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530km 짜리 경부운하를 어떻게 4년 안에 할 수 있느냐”라며 “낙동강에 배가 다니다가 최근 독일처럼 배가 침몰할 경우, 부산 시민들은 생수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98년부터 한강 수질개선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낙동강

개선 수질 비용으로 6천700억원이 들었다. 흐르는 강물 수질 관리도 이렇게 힘든데 물에 가뭄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은 “물류 목적이 20%에 불과한 사업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운을 걸어야 하느냐. 예상되는 국비 7~8조 교육·과학·복지에 우선 순위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운하는 환경 복원을 대전제로 한다. 운하가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환경보호에 반한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면서 “정부가 낙동강과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상호토론에서 “중국횡단철도(TCR)가 연결되면 열차페리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사베리아횡단철도(TSR)만 말하는 데 사실상 중국횡단철도(TCR)가 시간절약이 더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TSR도 한국으로 연결되는 데 별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열차페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제 공약에 대해 아무 것도 공부를 하지 않고 말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쾌감을 나타낸 뒤 “북한만 바라 볼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북

다소 구체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깎아내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인 그린벨트를 추가해제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고, 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정책토론을 거쳐 당의 기초가 된 것”이라면서 “제가 대표 시절에 한 것을 후보가 됐다고 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의 소신임을 설명했다. <성장률 논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공통으로 내놓은 경제성장률 7% 공약에 대해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성장률 7%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성장률 대신 양극화 해소 문제 등이 화두가 돼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시장은 기초연설에서 “7% 성장과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7·4·7’ 정책)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역사는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 왔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줄부세 정책과 신성장동력, 생활비 거품빼기 정책을 한걸음이 추진하면 7% 경제성장률과 5년간 일자리 300만 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11위인데 행복지수는 102등이다. ‘7·4·7’도 좋고 일자리 300만도 좋은 데 숫자 놀음의 시대는 지났다. 경제성장률이 7%가 된들 무슨 소용이냐”며 사회 양극화 우선 해소를 주장했다. 홍 의원의 “1% 성장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12만개가 생긴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면서 “성장계수에만 집착하는 경제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운하, 환경 파괴하면 지금이라도 포기”
朴 “열차페리는 북한과 철도 연결 앞당겨”
洪 “성장계수에 집착하는 경제정책 잘못”

2015년까지 투입할 20조원으로 운하를 만들면 결국 정부 돈 20조원이 절감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물을 가뭄두면 썩지 않는다는 기초적 질문을 하지만 이는 맞지 않으며 바이칼호나 소양강댐 물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가뭄됐다고 썩는 물이고, 흐른다고 맑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최고의 IT 기술이 없으면 못한다”고 덧붙였다. <열차페리> 박 전 대표는 기초연설에서 “사베리아 횡단철도와 열차페리를

한과 철도를 연결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열차페리가 필요하다. 고 후보는 남북분단을 고착화한 사고라고 했는데 저는 열차페리가 오히려 북한의 철도 연결을 빠르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줄부세’ 논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줄부세)는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원 의원은 “줄부세가 복지는 줄이고 재벌 규제와 난개발 투기를 막는 규제를 풀어서 여기서 생기는 시장의 실패, 약자들의 저항을 공권력으로 굳이 세우겠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정부를 상대로 즐거차게 주장하던 정책을

김 행이 본 한나라당 대선주자 정책토론회

빛고를 광주에서 정권교체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출발한 한나라당 경선 대장정. 왜 하필 광주가 시발점이었을까? 흥행을 위해? 영남당이어서? 민주화 성지니까? 아니면 2002년 노무현 역전드라마의 현상이어서? 여하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내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굳히기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의 뒤집기나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전반적인 평가부터 내려보자면 B+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다. 일단 재미있었다. 5인 5색의 후보들은 흥행 주역들로 손색이 없었다. 또한 후보 간 비방 없는 치열한 정책대결은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포지티브 경선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토론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없는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는 그야말로 ‘양고 빠진 전쟁’이 될 뻔 했다. 치열한 1대 4의 공격과 방어전이었다. 이후보가 ‘부자 품조심’하듯 수세적으로 토론을 이끌지 않을까 했

와 문제점’은 충분히 예상했을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나열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그가 한반도대운하와 대적정책으로 내놓았던 한중열차페리는 홍준표 후보의 TSR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다. 경제리더로서의 자질이나 콘텐츠를 보여 주기 보다는 반복되는 ‘수치 나열’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세금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라는 역점 정책도 설명이 부족했다. 역전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지누른 것은 아닌지. 이번 대회 최대 스타는 홍준표 후보라고 할 만 하다. 그의 촌철살인은 참관객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논리가 간결하고 명쾌했다. 가히 홍준표의 재발견이다. 그는 ‘홍준표의 검증’을 뛰어 넘어야만 한나라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나라당과 나머지 네 후보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진 것이다. 그의 화화 앞에선 이명박 후보도 박근혜 후보도 작아 보였다. 이제 그가 빠진 한나라당 경선은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산·대전·

5명의 흥행 주역들 ‘포지티브 경선’ 단초
李 강자 여유, 朴 역전 부담, 洪 스타 부상

던 당초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는 첫 질문을 박근혜 후보에게 날렸다. 그것도 매섭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구사한 것일까? 역시 강자다운 면모였다. 그는 1대 4의 난전에서도,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한 풍부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음을 유감 없이 드러냈다. 게다가 실물경험에 대한 ‘밈지 않은’ 자기 PR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그를 ‘확고한 강자’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1위 후보답게 여유와 위트를 즐겼고, 상대 후보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시종일관 논의를 주도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하지만 벌어진 잠재주자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까지 물고 늘어지는 ‘환경대쟁야’에 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 유권자를 당혹케 했다. 더구나 신혼부부 아파트 실비제공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말마따나 ‘영업비밀’이어서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다. 스스로 자신감 있는 부분만을 확대·반복·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선적이라는 이미지가 토론 내내 겹쳤음을 부인키 어렵다. 혹, 준비부족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정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일까? 자칫 강자의 오만함으로 비쳐질 수 있는 순간이 종종 눈에 띄었다. 여론조사 2위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이슈 선점에 한계를 보였다. ‘한반도 대운하’로 집중된 1대 4 토론의 최대 피해자였던 셈이다. 그의 부드러운 시선 처리, 다정한 웃음 사이에 간간히 내비치는 단호함은 인상적이었다. 모범생 같은 푹 떨어지는 답변으로 안정감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특히 ‘대처리즘’의 한계

서울 등 남은 일정 동안 그를 보고 싶어 하는 유권자가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다. 상대적으로 원희룡 후보는 존재가 드러나지 못했고, 고진화 후보는 ‘게임의 룰’을 지키는 데서조차 우왕좌왕하는 한계를 보였다. 원희룡은 정책의 공감대가 떨어졌고, 고 후보는 한나라당 ‘원희룡’이라는 별칭답게 다른 후보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토론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다. 그래도 이들이 있었기에 잔치가 보다 잔치답지 않았을까? 주연배우를 완성시켜주는 조연이 있어야만 ‘쇼’는 완성될 수 있다. 포지티브 선거전에 대한 기대는 벌써부터 6월 8일 부산대회를 기다리게 만든다.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정치평론가>



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열린 5·18기념문화관 기자실에서 헌정 취재를 하고 있는 김행씨.

분당을 이을 불패신화, 바로 용인입니다!
분당급신도시로의 관심집중, 무한 발전잠재력의 용인
‘수도권 투자 1번지’ - 용인시 원삼 -
평화도시 철원 토지 매각 공고
한국영림영농조합은 현대서산간척지를 위탁영농경영의 성공사례로 이끈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철원군 근남면 소재의 임야 180만평 중 35만평을 장뇌산삼 단지로 조성,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전의 시세로 소유권을 드립니다!
현시세 평당 약 20,000원 / 분양금액 평당 5,800원
분양내역: (토지매매+위탁영림) [위탁영림 계약시 수익금 지급 보증서 발행]
분양평수: 2,000평 / 토지매매대금 + 위탁영림대금 = 총 매매대금 2,020만원
(5년간[60개월] X 매월 [자비이체] 300,000원 = 총 18,000,000원 지급)
분양양차: 청약금 100만원(미계약시 당일 100% 환불)
문의 및 안내 전화 02) 582-7786
인금계좌안내: 제일은행 계좌번호: 440-20-144149 예금주: 한국영림영농조합(주)